

# 중국, 희토류 수출 놓고 “한판”

EU, 미국·일본과 공동대응 선언 ... WTO 제소 포함 대응책 모색

EU(유럽연합)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해 미국·일본과 공동 대응에 나선다.

EU 산하 유럽위원회(EC)가 중국의 희토류(Rare Earth Elements) 수출 규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일본과 접촉하기 시작했다고 지지통신이 11월3일 보도했다.

유럽위원회 대변인은 “중국이 2010년 하반기에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희토류 수출량을 대폭으로 줄인 결과 세계적으로 희토류 공급량이 감소했고 시장에 혼란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규제가 WTO(세계무역기구) 규정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중국의 주장에 커다란 의문을 느낀다”며 “사태를 주시해가며 WTO 제소를 포함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장벽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유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1/04>